

# 자아존중감,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인성의 관계

##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General Self-efficacy and Creative Personality

성은현(Eun-Hyun Sung)<sup>1)</sup>

###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plored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general self-efficacy and creative personality. The responses of 113 university students on self-esteem, general self-efficacy, and creative personality scal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Cronbach  $\alpha$  tests, Pearson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general self-efficacy and creative personality. Second, the effects of self-esteem on creative personality were mediated by general self-efficacy. Finall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self-regulation and self-confidence among the sub-factors of general self-efficacy were good predictors of the creative personality. From these results we conclude that it is important to improve general self-efficacy in order to develop creative personality.

**Key Words** : 자존감(self-esteem),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 창의적 인성(creative personality).

### I. 서론

현재 창의성 연구의 동향은 이전보다 확산적 사고력의 중요성을 덜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창의적인 사람의 인지, 인성, 환경과 관련된 심리적 물리적 변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명숙, 2001; 김종안, 1998; Csiksentmihalyi, 1988, 1990; Sternberg & Lubart, 1996, 1999). 그리고 창의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심리적 물리적

변인들의 연관성과 통로를 밝혀내는 작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Judge와 Bono(2001)에 의해 핵심자기평가특성(core self-evaluations traits)으로 제안된 바 있으며 여러 창의성 연구가들(김명숙·정대련·이종희, 2002; 김원경·우남희, 2002; 배진수·이영만, 2000; Cropley, 2001; Davis & Rimm, 2004; Piirto, 1998; Sternberg & Williams, 1996)로부터 창의성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이라고 언

<sup>1)</sup> 호서대학교 인간개발학부 아동학전공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Eun-Hyun Sung, Major in Child Studies, Hoseo University, Chungnam 330-713, Korea  
E-mail : ehsung@office.hoseo.ac.kr

급된 바 있는,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변인과 창의적 인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려한다.

## 1. 자아존중감과 창의성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이 창의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진다는 연구와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가 있다. Cropley(2001)와 Piirto(1998) 등은 창의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제안하였으며, Loeb과 Jay(1987, Davis & Rimm, 2004, p.38에서 재인용)는 영재여아들이 일반여아들보다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졌다고 하였다. Khatena(2000, p. 204-205)도 Maslow(1970)의 인간 동기 이론을 기초로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성취와 연관되어 있으며 영재아들에게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언급하였다. 김애경(2001)은 4년제 유아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자기긍정적인 자아개념이 높은 사람이 창의적 특성을 측정하는 창의성 점수에서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Dowd(1989, 234-235)는 창의성과 자아개념 또는 자아존중감 사이에 정적 연관성을 보고한 연구 결과들(Jaquish & Ripple, 1981 등)과 관계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 결과들(Williams, Poole & Lett, 1977; Wright, Fox & Noppe, 1975 등)을 소개하며, 자아개념 또는 자아존중감과 창의성의 관계는 사용된 도구에 따라 일관되지 않다고 하였다. 조성연(1997)은 도시와 농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토란스 창의적 사고력 검사를 사용하여 창의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대체로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얻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두 변인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하였다. 김원경과

우남희(2002)는 토란스 창의적 사고력 검사를 사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의 기질, 우울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양식과 아동의 창의성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중상관분석을 참고하면 창의성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계수는 .14로 나와 유의한 수준이기는 하였지만( $p < .05$ ) 상관의 크기는 낮았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통해 창의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창의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일관성 있는 결론을 유도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 2. 자기효능감과 창의성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요구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기대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Bandura, 1977) 많은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자기효능감이 창의성과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Cropley(2001), Piirto(1998), Sternberg와 Williams(1996)는 창의성의 발현을 위해 자기효능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Sternberg(2003)는 창의성 발달을 연구하면서 아동의 성공을 예언하는 가장 좋은 변인은 아동의 능력이라기보다 아동의 성공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여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배진수와 이영만(2000)은 자기효능감이 창의적 인성과 창의적 사고력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인성요인은  $r = .25$ 에서  $.66$ 으로 비교적 높은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사고력은  $r = .16$ 에서  $.18$  전후가 많아 유의한 수준( $p < .05$ )이기는 하였으나 상관계수는 낮았다. 김원경과 우남희(2002)는 토란스

창의적 사고력 검사를 사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의 기질, 우울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문제해결양식과 아동의 창의성을 연구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창의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명숙·정대련·이종희(2002)는 중학생 과학 영재와 일반아의 자기효능감을 비교한 결과 과학 영재가 일반아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고 하였으며, 과학영재와 일반아의 창의성(창의적 사고력과 창의적 인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한 하위요인인 자기조절효능감이 가장 설명력 있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이상으로부터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에 비해 일관되게 창의성과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 3. 문제제기 및 연구문제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하는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먼저 선행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창의성과의 관계를 연구할 때 주로 창의성의 한 부분인 창의적 사고력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내의 실험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과 창의적 사고력 간의 상관 크기는 낮았다(김원경·우남희, 2002; 조성연, 1997). 그러나 창의적 특성을 도입하여 창의적 특성과 긍정적 자아개념의 관계를 살펴본 김애경(2001)의 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에 상관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창의적 인성을 도입한다면 자아존중감과 창의성간에 높은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었다. 창의적 인성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적 특성으로 그 구성 요인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패에 대한 인

내, 과제 집착력, 동기, 개방성과 호기심, 독자성, 유머, 모험심 등을 들 수 있다(박병기, 1998; 송인섭·김혜숙, 1999; 하주현, 2000; Amabile, 1989, 1997; Urban, 1995).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사이에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김원경·우남희, 2002; Judge & Bono, 2001)를 고려해볼 때, Judge와 Bono(2001)도 언급하였듯이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함으로, 실패에 부딪쳐도 자책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재조정하고 더욱 노력하게 하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앞서 선행 연구(김명숙·정대련·이종희, 2002; 김원경·우남희, 2002; 배진수·이영만, 2000; Cropley, 2001; Piirto, 1998; Sternberg, 2003; Sternberg & Williams, 1996)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독자적으로 자신의 일에 집요하게 매달릴 수 있으며 더 좋은 결과를 위해 다양한 정보에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창의적 인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정리하면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잘 세우고 끈기 있게 노력하며, 어려운 일에 도전하게 되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되고,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의 특성은 독자성과 개방성 및 집요성 등을 구성 요인으로 하는 창의적 인성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되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김원경과 우남희(2002)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자아존중감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의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

는데 이들의 연구에서는 창의적 사고력을 도입 하였기 때문에 창의적 인성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단언할 수 없었다.

또한 자기효능감 연구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Bandura(1989, 1993)는 자기효능감이 과제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과제 특수 적 신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많은 학자들이 이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존재함을 밝혀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 하는 연구들이 새로운 관심을 받게 되었다(김아영 · 차정은, 1996; Bong, 1997; Eden & Aviram, 1993; 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Jacobs, & Rogers, 1982). 이러한 변화 속에서 창의적 인성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연구 하기 위해서는 상황(또는 과제) 특수적 자기효 능감 보다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몇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해 볼 때(김아영, 1997; 김아영 · 차정은, 1996; Sherer 등, 1982)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요인이 창의적 인성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다른지, 만약 다르다면 특히 어떤 요인이 창의적 인성에 특히 영향을 끼치는지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 되었다.

이러한 생각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일반적 자기효능 감 및 창의적 인성 간의 관계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려 한다.

첫째, 자아존중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창 의적 인성은 관계가 있는가?

둘째, 자아존중감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매 개로 창의적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 감과 자기조절효능감 및 과제난이도 선호가 각

각 창의적 인성요인들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 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충남지역에 있는 H 대학교 남녀학생 127명 (남 : 51명; 여 : 76명; 평균 연령 : 20.8세)에게 창의적 인성 검사와 일반적 자기효능감 검사 및 자아존중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성의 없이 답하였거나 세 가지 검사 중 하나 또는 두개를 수행하지 못한 학생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113명분(남 : 41명; 여 : 72명; 평균 연령 : 20.6세)이었다.

### 2. 측정도구

#### 1) 창의적 인성 검사

창의적 인성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김혜숙 (1999), 박병기와 유경순(2000)의 연구에서 사 용했던 창의적 인성 문항 중 독자성, 개방성, 집요성과 호기심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들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 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독자성에 관한 7 문항, 개방성에 관한 6문항, 집요성에 관한 7문 항, 호기심에 관한 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Cronbach  $\alpha$  값은 독자성이 .79, 개방성이 .66, 집요성이 .76, 호기심이 .76 그리고 독자성, 개 방성, 집요성과 호기심 문항 합의 평균인 창의 적 인성총점에 대해서 .86이었다.

독자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남 과 다른 여러 가지 형식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상상력이 풍부한가를 측정하였다. 개방성은 정

해진 틀과 규칙에 따라하는 것을 싫어하고 모험을 좋아하는가를 측정하였다. 집요성은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 버리고, 하고 싶은 일에 열의와 고집이 있는가를 측정하였다. 호기심은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갖고 사소한 것을 보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가를 측정하였다.

### 2) 자아존중감 검사

자아존중감 검사는 Rosenberg(1965)의 척도에 기초한 것으로 윤유경(1996)이 사용하였던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모두 11문항이고 내용은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평정척도는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6점)'까지 6점 평정척도이며,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이 .73이었다.

### 3) 일반적 자기효능감 검사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아영(1997)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3개의 하위요인(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을 측정하는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부터 '아주 많이 그런 편이다(6점)'의 Likert식 6점 평정 척도로 되어 있었다. 자신감 요인은 어려운 일, 위험 상황,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자기조절효능감 요인은 문제나 상황에 대한 판단력, 정확성, 원인과 결과 분석력, 정보 활용도, 계획성, 조직성, 일에 대한 끈기 등을 측정하였고, 과제난이도선호 요인은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을 선택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각 하위요인 별로 문항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는 자신감, .83, 자기조절효능감, .86, 과제난이도선호, .81, 그리고

위 세요인의 합인 평균인 일반적 자기효능감총점이 .90이었다.

## 3. 자료처리

각 검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Cronbach  $\alpha$  값을 구하였으며, 창의적 인성요인들(독자성, 개방성, 집요성, 호기심과 창의적 인성총점), 일반적 자기효능감 요인들(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총점)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총점이 자아존중감과 창의적 인성총점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김애경(2003), 성은현(2004) 연구에서도 사용하였던 Barron과 Kenny(1986) 모델에 근거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sup>1)</sup>. 마지막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중 어느 요인이 창의적 인성요인을 가장 많이 예측할 수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Bar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검증 방법은 3단계를 걸쳐 진행되는데 1단계,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예측하는지 회귀분석하고, 2단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예측하는지 회귀분석하고, 3단계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예측하는지 회귀분석한다. 매개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첫째,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영향을 끼쳐야하고 둘째, 2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끼쳐야하고 셋째, 3단계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끼쳐야한다. 매개변인이 들어오면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장 강력한 것은 '0'인 경우),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임을 의미한다.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더라도 최소한 매개변인이 들어오면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2단계에서보다 3단계에서 떨어져야 한다. 또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의 원인으로 간주됨으로 이 두 변인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야한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자아존중감,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인성의 상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일반적 자기효능감요인들과 창의적 인성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자아존중감은 과제난이도선호를 제외한 모든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총점)과 매우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창의적 인성의 호기심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독자성, 개방성, 집요성과 창의적 인성총점)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일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인성과 대체로 긍정적인 관계를 가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일반적 자기효능감총점)은 대체로 창의적 인성의 모든 하위요인들(독자성, 개방성, 집요성, 호기심과 창의적

인성총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 상관계수들은 자아존중감과 창의적 인성요인들이 보여준 상관계수보다 더 높았다. 다만, 자아존중감이 창의적 인성의 호기심 요인과 관계가 없었듯이, 일반적 자기효능감 요인 중 자신감과 과제난이도선호 요인은 창의적 인성 중 호기심 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아존중감과 자신감 있고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측면이 창의적 인성의 호기심과는 관련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또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창의적 인성의 하위요인들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인성 각각의 하위요인 간에 서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2. 자아존중감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매개효과 분석

Bar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검증 방

<표 1> 자아존중감,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인성의 상관분석

	일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인성				
	자신감	자기조절감	과제난이도선호	일반적 자기효능감총점	독자성	개방성	집요성	호기심	창의적 인성총점
자아존중감	.53***	.46***	.12	.52***	.35***	.21*	.22*	.13	.31***
자신감		.51***	.38***	.81***	.49***	.31***	.26**	.16	.41***
일반적 자기효능감			.43***	.86**	.42***	.28**	.49***	.29**	.50***
과제난이도 자기효능감총점				.68***	.30**	.29**	.30**	.14	.35***
독자성					.52***	.36***	.46***	.26**	.54***
개방성						.48***	.31***	.44***	.75***
창의적 인성							.27**	.47***	.76***
집요성								.32**	.64***
호기심									.78***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자아존중감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매개 효과

단 계	종 속 변 수	독 립 변 수	$\beta$	F	R <sup>2</sup>
1	일반적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52***	40.32***	.27
2	창의적 인성	자아존중감	.31**	11.61***	.10
3	창의적 인성	자아존중감 일반적 자기효능감	.04 .52***	22.58***	.29

\* $p < .05$  \*\* $p < .01$  \*\*\* $p \leq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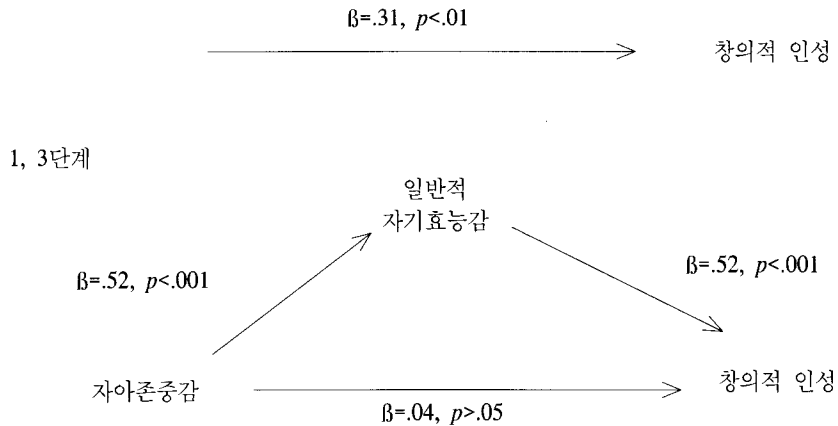
법을 사용하여 자아존중감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의적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때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인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 자기효능감총점과 창의적 인성총점을 참고로 하였다. 그 결과가 <표 2>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와 <그림 1>의 결과는 Bar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매개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다. 즉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으며,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인인 창의적 인성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3단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을 때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창

의적 인성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 반면 자아존중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들어오자 2단계( $\beta = .31, p < .01$ )에서 유의하였던 영향력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beta = .04, p > .05$ ). 독립변인인 자아존중감과 매개변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도 매우 유의한 수준( $r = .52, p < .001$ )이었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를 통해서 창의적 인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 창의적 인성요인 각각에 대해 일반적 자기효능감 각 하위요인들의 설명력 분석

창의적 인성요인들(독자성, 개방성, 집요성, 호기심 및 창의적 인성요인 총점)을 예측하는데



<그림 1>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표 3〉 독자성, 개방성, 집요성, 호기심과 창의적 인성총점에 대해 일반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들의 단계별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SEB	$\beta$	t	R	R <sup>2</sup>	F
독자성	자신감	.25	.06	.37	3.90***	.49	.24	20.91***
	자기조절감	.23	.09	.23	2.48*	.53	.28	
개방성	자신감	.18	.08	.23	2.38*	.31	.09	8.17***
	과제난이도선호	.17	.08	.21	2.13*	.36	.13	
집요성	자기조절감	.48	.08	.49	5.91***	.49	.24	34.9***
호기심	자기조절감	.27	.09	.29	3.13**	.29	.08	9.78**
창의적 인성총점	자기조절감	.29	.07	.39	4.18***	.50	.25	21.46***
	자신감	.11	.05	.21	2.24*	.53	.28	

\* $p < .05$  \*\* $p < .01$  \*\*\* $p < .001$

일반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들(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의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창의적 인성요인별로 일반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의 설명력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독자성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고 (24%) 다음이 자기조절효능감(4%)이었으며 이 두 변인의 총 설명력은 28%이었다. 개방성에 대해서 역시 자신감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9%), 과제난이도선호 요인이 들어와서 설명력이 4% 증가하여 이 두 변인은 총 13%의 설명력을 보였다. 집요성과 호기심에 대해서는 각각 자기조절효능감만이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는데 그 설명력은 집요성에 대해 24%이었으나 호기심에 대해서는 8%에 그쳤다. 창의적 인성총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조절효능감의 설명력이 25%이었고, 자신감이 추가되어 설명력이 3%늘어났으며 이 회귀식의 총 설명력은 28%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창의적 인성의 하위요인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창의적 인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은 자기조절효능감과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앞서 소개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점과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상관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은 과제난이도 선호를 제외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총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대체로 김원경과 우남희(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자아존중감이, 자신감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조절을 잘하여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어려운 문제를 선호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과제난이도 선호)과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결과로부터, 자아존중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서로 간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지만 구별되는 개념이며, 특히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과제난이도 특성과 관련하여 두 개념은 서로 독립적인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창의적 인성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호기심을 제외한 모든 창의적 인성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창의성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던 Cropley(2001)와 Piirto(1998), Katana(2000), Loeb과 Jay(1987, Davis & Rimm, 2004, p.38에서 재인용)의 연구를 대체로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 자아개념과 창의적 특성 간에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김애경(2001)의 연구 결과와도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창의적 사고력을 도입하여 자아존중감과 창의적 사고력 간에 낮은 상관을 발견하였던 김원경과 우남희(2002), 조성연(1997)의 연구 결과에 비해서 창의적 인성을 도입한 본 연구에서는 상관의 정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서론에서 예측하였던 것과 같이 자아존중감이 창의적 사고력보다 창의적 인성과 관계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인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은 대체로 창의적 인성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인성요인과의 상관계수는 자아존중감과 창의적 인성요인과의 상관계수보다 높았다. 이는 서론에서 자기효능감이 자아존중감보다 창의적 인성과 더 높은 상관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던 것과 일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창의성에 필요하다는 Cropley(2001), Piirto(1998), Sternberg와 Williams(1996)의 의견을 지지하며, 배진수와 이영만(2000)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창의적 인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신감 있고 자기조절을 잘 하고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는 일

반적 자기효능감이, 독자적이고 개방적이고 하고자하는 일에 집요한 창의적 인성과 유관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Bar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검증 방법을 사용하여 자아존중감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의적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자아존중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해서 창의적 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회귀분석 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설명변인이었는데 ( $\beta=.31, p<.01$ ), 매개변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설명변인으로 들어오면서 자아존중감의 설명력은 더 이상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beta=.04, p>.05$ ). Barron과 Kenny(1986, p.1176)는 '매개변인이 들어오면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다는 것은 매개변인의 효과가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자아존중감과 창의적 인성의 관계에 강력한 매개변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창의적 인성검사를 사용한 본 연구 결과는, 창의적 사고력 검사를 사용하여 자아존중감이 자기효능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창의적 사고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김원경과 우남희(2002)의 연구 결과와 같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의적 사고력과 창의적 인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다섯째,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이 창의적 인성요인들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알아본 결과, 창의적 인성요인을 설명하는데 대체로 일반적 자기조절효능감과 자신감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주요 변인이었다. 이는 과학영재와 일반아의 창의성(창의적 사고력과 창의적 인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한

하위요인인 자기조절효능감이 가장 설명력 있는 변인이라고 하였던 김명숙·정대련·이종희(2002)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는 창의적 인성의 하위요인에 따라 일반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들의 설명력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독자성을 위해서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이 자기조절효능감인데 비해 집요성과 호기심에서는 자기조절효능감만이 중요한 변인이었고, 창의적 인성총점에서는 자기조절효능감이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이 자신감이었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과제난이도 선호요인은 창의적 인성요인 중 개방성 요인에서만 유의한 설명력을 가졌다. 즉, 개방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였고 그 다음이 과제난이도 선호였다. 이렇듯 일반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의 설명력은 창의적 인성의 각 하위요인에 따라 달라졌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창의적 인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구성 요인 중에서 특히 자기조절효능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더욱 효율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성의 각 요인과 관련되어 있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해당 요인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제한점 및 제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창의적 인성에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컸다는 본 연구 결과는 창의성 연구에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역할이 중요함을 조명해주었으며, 자아존중감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의적 인성에 영향을 미침을 밝힘으로써 창의성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충남이라는 한정된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전체 대학생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여겨진다.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더 많은 지역에서 대상을 표집하고 결과를 재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연구 대상의 부모와 교사의 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들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교사의 태도, 나아가서는 창의적 환경에 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환경과 개인의 심리적 변인 및 창의성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조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 김명숙(2001). 통합적 창의성 모형의 구성. *교육심리연구* 15(3), 5-27.
- 김명숙·정대련·이종희(2002). 과학영재의 창의성, 환경, 그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91-108.
- 김아영·차정은(1996). 자기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51-64.
- 김아영(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인 연구. *교육심리연구* 11(2), 1-19.
- 김애경(2001). 예비 유아교사의 성격유형과 자아개념 및 창의성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1(2), 5-23.
- 김애경(2003).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 지지와 내외통제성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10(3), 351-372.
- 김원경·우남희 (2002). 아동의 창의성에 대한 심리적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3(2), 1-16.
- 김종안(1998). 통합적 접근에 기초한 아동의 창의성 측정 도구 개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숙(1999). 창의성 진단 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

- 화. *교육심리연구*, 13(4), 269-303.
- 박병기(1998). *창의성 교육의 기반*. 서울 : 교육과학사.
- 박병기 · 유경순(2000). 창의성과 지능의 관계구조. *교육심리연구*, 14(2), 235-261.
- 배진수 · 이영만(2000).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창의적 성격과 창의성과의 관계. *초등교육연구*, 13(2), 43-61.
- 송인섭 · 김혜숙(1999). 창의성 개념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암시적 창의성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3), 93-117.
- 성은현(2004). 어머니의 내외통제성과 창의적 가정환경 및 창의적 인성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7(3).
- 윤유경(1996). 주관적 연령의 예측 요인과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성연(1997). 도시와 농촌 아동의 창의성과 자아존중감 및 어머니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2), 17-32.
- 하주현(2000). 창의적 인성 검사 개발. *교육심리연구*, 14(2), 187-210.
- Amabile, T. M.(1989). *Growing up Creative : Nurturing a Lifetime of Creativity*. 전경원 역(1998), *창의성과 동기유발*. 서울 : 창지사.
- Amabile, T. M.(1997). Entrepreneurial Creativity through Motivational Synergy.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31(1), 18-26.
- Bandura, A.(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1989). Regulation of Cognitive Processes Through Perceived Self-Efficacy. *Developmental Psychology*. 25(5), 729-735.
- Bandura, A.(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 Bar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s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ong, M. M.(1997). Generality of Academic Self-Efficacy Judgments : Evidence of Hierarchical Relat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4), 696-709.
- Cropley, A. J.(2001). *Creativity in education & learning*. UK : Kogan page.
- Csikszentmihalyi, M.(1988). Society, Culture and Person : a systems view of creativity. In Sternberg, R. J. (Ed.), *The nature of creativity : Contemporary Psychological Perspective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325-339.
- Csikszentmihalyi, M.(1990). *Flow :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 Harper and Row.
- Davis, G. A., & Rimm, S. B.(2004).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Boston : Allyn and Bacon.
- Dowd, E. T.(1989). The Self and Creativity. in J. A. Glover, R. R. Ronning, C. R. Reynolds, *Handbook of Creativity*. New York : Plenum Press, 233-242.
- Eden, D., & Aviram, A.(1993). Self-Efficacy Training to Speed Reemployment : Helping People to Help Themselv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3) 352-360.
- Jaquish, G. A., & Ripple, R. E.(1981). Cognitive creative ability and self esteem across the adult life span. *Human Development*, 24, 110-119.
- Judge, T. A., & Bono, J. E.(2001). Relationship of core self-evaluations traits-self-esteem, generalized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emotional stability-with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 80-92.
- Khatena, J.(2000). *Enhancing creativity of gifted children*, Hampton Press INC.
- Loeb, R. C., & Jay, G.(1987). Self-concept in gifted children : Differential impact in boys and girls. *Gifted Child Quarterly*, 31, 9-14.
- Maslow, A. H.(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2nd

- ed.). New York : Harper & Row.
- Piirto, J.(1998). *Understanding Those Who Create*. Gifted Psychology Press, Inc.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 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1982). The Self-Efficacy Scale :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ternberg, R. J.(2003).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as a decision making process. in Sawyer, R. K., John-Steiner, V., Moran, S., Sternberg, R. J., Feldman, D. H., Nakamura, J., & Csikszentmihalyi, M., *Creativity and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 Sternberg, R. J., & Lubart, T. I.(1996). Investing in Crea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1, July, 677-688.
- Sternberg, R. J., & Lubart, T. I.(1999). The concept of creativity : Prospects and paradigms. In Sternberg, R. J. (Ed.), *Handbook of Creativit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3-15.
- Sternberg, R. J., & Williams, W. M.(1996). *How to develop student creativity*. Alexandria, VA :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Urban, K. K.(1995). Creativity -A componential approach. *Post conference China meeting of the 11th world conference on gifted and talented children*. Beijing, China, August. 5-8.
- Williams, A. J., Poole, M. E., & Lett, W. R.(1977). The creativity/self-concept relationship reviewed : An australian longitudinal perspective. *Australian Psychologist*, 12, 313-317.
- Wright, R. J., Fox, M., & Noppe, L.(1975). The inter-relationship of creativity, self-esteem, and creative self-concept. *Psychology*, 12, 11-15.

---

2004년 10월 31일 투고 : 2005년 1월 1일 채택